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서 -

창세기1:27-28, 골로새서2:1-3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그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그리하여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응답을 얻어서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성취되는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 하나이다. 사도바울은 AD. 60-62년 사이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생활을 하였다. 이 때 4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4권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같은 지역에 보낸 편지이다.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세워진 많은 교회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낸 것이다. 골로새서의 특징은 에베소서와 55개의 구절이 같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골로새서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이번에 팔라완 지역 선교를 다녀왔다. 우리가 10년 동안 필리핀 신학교를 후원했다. 그 학교에서 팔라완 지역으로 아브넬이라는 제자를 파송했다. 이 분이 복음이 약한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다락방의 흐름을 타게 했다고 한다.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기록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필리핀 팔라완 생각이 나고, 아브넬이 생각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도에 올인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것이다. 참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칠 때 함께 참여한 사람인 것 같다. 이 옥중 서신들을 전달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

도바울의 제자와 비서의 역할을 담당한 ‘두기고’였다. 골로새서 4장 7절이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뿐만 아니라 편지를 전하는데 그 설명을 두기고가 했을 것이다. 충성도 있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실력도 있었던 그런 제자였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골로새교회로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1. 당시 골로새교회의 문제들과 지금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였다.

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온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과거의 할례는 몸에 양피지를 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피 언약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런 외형적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받는 것이다. 마음에 어떻게 받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다.

② 또한 골로새교회에는 음식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전통과 같은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에 대하여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③ 헬라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와 가현설(도케티즘)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공격하였다. 헬라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끝난다. 자연을 보니까 씨가 뿌리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이다. 지금과는 다르게 신비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물질을 볼 때 너무 타락해 보이거나 혹은 신성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다.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9절에 말하고 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육을 지닌 사람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정욕에 빠지기도 하지만, 부활체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신분의 문제이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래, 나는 그래서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듭나고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지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2)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철학과 종교에 영향을 받은 골로새 사람들은 삶이 잘못되고 부분이 많았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삶의 기준을 주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과 5절에서 6절이

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3장 10절이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상 기준들은 복음으로 재 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망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상, 지식, 기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3)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믿음들과 이단과 사상들이 많다.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유교적인 율법주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신앙,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교회와 같이 많은 잘못된 이단과 사상들이 있다.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와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해방신학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해방신학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에는 성경을 들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다. 대표적인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 이만회를 보혜사로 믿는 신천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사상,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들과 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그 방법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사상이나 철학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길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겠다.

①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사탄의 흑암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선지자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길 되신 선지자이신 것이다.

②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기를 바란다.

③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창조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④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붙

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알아야 한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로부터 우주만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한국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함께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시면 우주만물들은 모두 분열되고 해체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우리의 건강, 사회, 정치, 문화도 건강하게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선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3) 위의 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2절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도 골로새서 안에서 우리들의 CVDIP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사상과 지식을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적인 지식으로 3단체와 237나라의 지식우상, 사상우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 문제를 놓고 24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위해 24시해야겠다.
4. Image 이미지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를 복음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5. 마지막으로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주간도 날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증거 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비밀되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 살리는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과 12가지 옛 것이 완전히 복음의 새것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